

KIEP 한중경제 포럼

KIEP Korea-China Economic Forum

제02-06 / 2002년 6월 26일

WTO가입 후 중국의 外資利用 전략과 韓中 産業協力

리밍싱(李明星)

중국국가경제무역위 經濟研究諮詢中心 處長

I. 발표 내용

1. WTO가입 후 중국의 개방형 경제발전 전략

□ 江澤民시대와 鄧小平시대의 국제적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도 새로 설정해야 함.

- 등소평 시대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로서 자국 영토내에서의 발전을 중요시 했지만 강택민시대는 글로벌화 시대로 과학기술을 토대로 하는 전 지구촌에서의 발전이 중요시 됨.

□ 전세계 차원의 경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“전략적 발전”을 달성함.

-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및 세계경제 구조조정의 전략적 결합을 달성해 경제 글

*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, 정책 입안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<한중 경제포럼>을 운영,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,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 대사관 경제부문 인사,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.

로벌화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함.

- 비교우위 및 우수한 경영환경에 기초해 생산력 요소를 대량으로 보유토록 함.
- o 중국의 비교우위로서는 저렴한 노동력 자원, 비교적 성숙된 가공능력, 거대한 시장을 들 수 있음.
- 외자가 대형기업의 개편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산업조직구조를 합리화 함.

□ 체제혁신을 가속화해 “개방적 발전”을 이룩함.

- 고효율의 시장체제를 완비하고 우수한 경영환경을 건설해 경제체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.
- o 중국에서 시장경제의 기본틀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,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키는가 하는 것임.
- 개방형 경제운영을 완비하여 전세계 경영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하며, 글로벌화 분업협력체제를 완비하여 산업구조 합리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해야 함.
- o 중국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세계분업체제 가운데서 산업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자원을 충분히 활용함.

□ 과학기술 분야의 도약 기회를 포착하여 “도약적 발전”을 이룩함.

- 전략적 경쟁정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유도함.
- 과학기술 혁신 및 새로운 메커니즘 보급을 바탕으로 저수준에서의 중복 연구개발을 피하고 “도입, 소화, 혁신”을 달성함.
- o 중국 민영기업 등은 자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다국적 기업과 R&D 협력, 기술공동개발 등을 통해 기술을 도입함.

- 전통산업개조, 첨단기술 발전을 가속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함.

2. 새로운 시대의 중국 외자이용 전략

□ 외자의 투자방향을 적극 인도하여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함.

- 산업구조 합리화 촉진
 - o 2001년 대외무역규모는 5,097억 7,000만 달러로 GDP에 대한 기여도가 절반에 가까운데, 이는 중국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.
 - o 홍콩, 싱가포르 등 인구 소국이나 지역의 경우에는 대외무역의 GDP기여도가 높지만 미국, 일본을 비롯한 인구 대국에서는 동 기여도가 상당히 낮음.
 - o 중국에서 대외무역의 GDP기여도가 높은 이유는 국내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해 외국에서 수입하고, 가공상품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임.
- 외자이용, 합병인수 및 중소기업의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교우위 발휘 등을 통한 산업조직구조 합리화
- 연해지역과 내륙지역, 도시와 농촌간의 구조조정을 추진함. 중국정부는 작년도 국가투자의 70%를 서부지역에 투자하였음.

□ 외자이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경영환경 경쟁력을 강화함.

- 외자를 이용하여 사회운행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충실히 함.
 - o 중국은 사회보장체제 미비로 인해 사회안정의 확보면에서 미흡함. 중국의 재정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%로 정비된 사회보장체제 구축에 역부족임(예컨대 북유럽의 경우 40%, 영국 30-36%, 미국 28% 등임).
 - o 따라서 보험제도 완비 및 보험상품 다양화 등에 외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함.
 - o 현재 중국의 업종협회는 시장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, 영국의

Economics Group 조직이나 변호사사무소, 컨설팅회사 등을 구축해 협회를 대체하도록 해야 함.

- 외자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의 취약한 부분을 강화함.
- 서부지역 및 과잉생산이 아닌 분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, 경영요소의 취약한 부분을 완비함.

□ 외자이용 방식을 적극 확대하고 외자이용 효율을 제고함.

- 녹지 투자 및 생산력 분포의 조정을 계속 장려
- 법제환경을 완비하고 합병인수 투자를 장려하여 구조조정 촉진
-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, 증권투자 및 국제융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

3. 새로운 시대의 한중 산업협력 방향

□ 전세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사고에 입각한 재중 경영, 즉 중국을 기지로 하는 세계경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.

- 중국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, 기술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이라면 가장 우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.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비교우위를 개발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육성해야 함.

□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새로운 지역간 분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글로벌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.

- 새로운 지역간 분업체제하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본과 기술임.
- o 중국은 아직 자본시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이 지역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비교우위를 확보

- 세계의 인재들을 유치, 한국을 아시아지역의 연구개발센터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비교우위를 창출
- 동서양 문화 및 문명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룩해 경제 글로벌화의 혜택을 향수

□ 중국의 개혁개방 조류에 동참, 중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음.

- 기업경영전략은 국가발전전략 및 운영메커니즘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함. 또한 여러 가지 투자방식을 전략적으로 조합하고 투자구조를 전략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.
- “다차원” 시장에 상응하는 종합전략을 수립, 중국경제의 “복합적인 발전이익”을 향수함.

2. 토론요지

問: - 과거에는 외자유치 방법이 FDI 방식을 위주로 했지만, 앞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M&A 방식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.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데, 경제적으로 낙후한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시에도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있어서 M&A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?

答: - 중국은 건국 초기에 소위 “三線建設”, 즉 군사, 경제, 지리적으로 제3선으로 분류된 서북지역 및 서남지역에 국방경제 건설을 추진했는데, 대부분 전략적 업종을 중서부 지역에서 건설하거나 중서부로 이전시켰음.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업들이 중서부 지역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에는 유망업종이 많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.

問: -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장차 모든 산업분야에서 우대정책이 취소될 전망인바, 우대정책 없이도 서부개발을 위한 외자유치가 가능한가?

答: - 평등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서부개발을 유도하며, 인프라 개선을 하는가 하

는 것이 중요함.

- 향후 서부개발에서는 노동집약형 산업 및 특색 있고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임.
- 동부지역의 소비시장은 자발적으로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서부지역의 소비시장은 의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.
- 생명보험, 은행 등을 발전시켜 서부지역의 비교우위 사업 육성을 위한 건인차 역할을 하게 한다면 외자 유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問: - 현재 많은 기업들이 외형상 주식제를 택하고 있지만, 실제로는 사장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자본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. 이에 대한 견해는?

答: - 현재 상당수 중국 대형기업의 고위 책임자는 중앙에 의해 임명되지만 향후에는 주주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을 구성할 것임. 현재는 혁신을 추진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 사실임.

問: - 퇴직 직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혁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?

答: - 현재 기업이 잉여노동력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‘買斷工齡’ 방식임. 이 방법은 기업이 퇴직 직원과 협의하여 일정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직원에게 지불함으로써 노동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것임.

- 그러나 ‘買斷工齡’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경제보상금 성격을 지닌 것으로,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.

- 현실적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중단하기는 어렵고, 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기업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임. 중국 정부는 약 10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친 후에야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 (***)